

남천중·UN기념공원 도로정비

안전한 등하굣길 내방객 편의 제공… 주민 호응



남구는 최근 남천중학교 입구 도로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고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정비 공사를 마무리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시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아 지난달 10일 UN기념공원 내 순환도로와 용당로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대연3동 남천중학교 일원 도로를 재정비했다. 구는 남천중학교 재정비 사업을 통해 후문을 설치하고 입구에서 정문에 이르는 약 60m 도로를 포장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차면수도 73면에서 37면으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주민들과 협의해 명동맨션 쪽 주차장을 폐쇄하고 통학로를 만들었다. 통학로와 후문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후문 설치 이후 등하굣길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져 전체 학생의 80%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사는 남천중과 학부모화에 서 지난 5월 후문설치를 강력히 건의해 이뤄졌다. 남구는 또 UN기념공원 측에서 6·25행사와 관련해 노후 된 공원 내 도로와 주변도로 정비를 요청해 올해 따라 UN기념공원 내 도로 800m와 용당로 100m 도로를 포장했다. 구의 이번 공사는 UN기념공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국내·외 유명인사가 찾고 있어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된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최고 수혜자는 주민

이석조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



“남구청의 도움을 받아 UN공원에 도로를 정비하게 돼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이석조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은 최근 남구청이 완료한 UN기념공원 도로정비 사업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 처장은 “UN기념공원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유엔군 2,300여기가 영면한 세계 유일의 장소로 해마다 백만명에 가까운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고 있다”며 “이번에 남구청이 공원 남쪽 부분 도로를 깔끔히 정비해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원 안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 주민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번 도로정비사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국비 6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공원 남측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고 말했다.

올 연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 처장은 “임기 내에 기념관 내부를 정비하고 추모관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학로 설치에 감사

조명숙 남천중학교 학부모회장



조명숙 남천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남구청에 건의한 결과 주차장을 일부 폐쇄해 통학로와 후문을 설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었는데 이번에 남구청이 후문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 및 우측 주거지전용주차장 14면을 폐쇄하고 통학로를 확보해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준 점 학부모를 대표해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통학로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학교 측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던 중 지난 5월 남구청에 후문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회장은 “무엇보다 개학과 동시에 후문설치가 완료돼 어린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구청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통학로를 만들어 줬 행정에 큰 신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남구漫評

채규중



“한판 놀아 봅시다”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대상 민원택배제 확대 시행

남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거동불편민원택배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관내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 한통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관내 15개 복지시설로 확대 운영된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모두 20종.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택배제 발급 실적은 113건에 125통이며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은 3,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607-4267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유료접종일시 및 대상자

구분	1차	2차
일시	2008. 10. 15일부터~ 유료약물 없어질 때까지	2008. 10. 21일부터~ 유료약물 없어질 때까지
대상자	만 60세 이상(1948년 출생자까지)	만 50세 이상(1958년 출생자까지)

■무료접종일시 및 대상자

일시	2008. 10. 15일부터~무료약물 없어질 때까지
대상자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 1~3급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접종장소 : 보건소 1층 민원실

- 지참물
 - ▶유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 ▶무료 : 의료급여증(1, 2종), 신분증 장애인등록증(1~3급), 국가유공자증(본인)(무료대상자는 인정제한이 없으며, 만3세부터 가능)
- 주치의 또는 해당 전문의 상담 후 접종 대상자
 -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접종 후 대기장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
- 접종개시일 부터 3~4일간의 혼잡이 예상
 - 접종 집중일은 되도록 피해서 접종

문의처 : 남구보건소 ☎ 607-4791(복), 예방접종실 ☎ 607-4798

불법광고물 이제 설자리 없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광고물 실명제와 과태료 대폭 인상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인상

오는 12월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지 1년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광고물 실명제는 모든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따라서 오는 12월22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모두 제작자명 등이 표시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내년 6월22일부터는 기존 광고물까지 적용된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된다. 3회 이상 상습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는 관회사업제한을 받는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지도 가능해지는 등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진신고하면 처벌면제

남구는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업자들이 자진신고해 해를 경우 모두 구제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모든 업소의 광고물(간판)이며 신고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남구청 도시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

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단행될 예정이다.

공공 광고물 표시기준 마련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현수막이나 간판을 설치해 왔으나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돼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같이 구청장에게 허가·신고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남구는 9월말까지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물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표시기준에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진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 607-4622

명함형 불법전단 단속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불법전단 무차별 살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남구는 지난 22일부터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10월2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이 거리 청소시 명함형 불법전단을 수거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근절 나섰다

용호로변 가로화단 조성 쾌적한 거리환경 기대

남구는 대단지아파트와 대학교, 대형상가 주변 등의 도로와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노점상 대부분은 도로상 건물목이나 버스정류소 주변 등에서 좌판이나 차랑을 이용해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남구는 노점상과 숭바꼭질 단속을 근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 주변 노점상 상습발생 지역인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도로변 보도상에 6,400만원을 들여 가로화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 상가 앞과 맞은편 일신대로바 아파트에서 비치유주소까지 210m에 이르는 보도에 홍가시 나무 1,600그루 등을 심어 10월말 까지 가로화단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엔 설치되는 가로화단은 지난 해 시주간 도로유지 평가시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500만원 중 일부와 올해 8월 시청으로부터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 지원받은 3천만원으로 조성된다.

구는 앞으로도 경성대 부경대 일원 등 물론 대형상가와 재래시장 주변까지 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4일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관내 주요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사설 안내 표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해당 기관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남구에 있는 총 212개 사설안내표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5개 공공기관과 8개 교육기관 등에서 설치한 총 58개소의 사설안내표지가 규격이나 색상이 맞지 않거나 기관별로 설치 수량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앞으로 과다한 기관의 사설 안내표지는 시설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색상과 규격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인재육성 도시에 선정

RHRD사업 계속 추진

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 인재육성 사업 추진도시로 선정돼 내년 2월까지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1억원과 구비 2억 5천만원 등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저소득,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자녀들의 학력을 높이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과 후 학교 전문강사 교육을 받은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또한, 영어체험교실을 3개교(우암, 문현, 용산초교)에 설치하여 영어인프라 구축은 물론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는 먼저 2007년~2008년 2년동안 여성회관, 부경대학교, 부울경여성과학기술인재센터(동서대 내)에서 양성된 고학력 여성들 중 우수한 성적을 쌓은 42명의 인력을 동 주민센터 기초학습프로그램과 동 주민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08년 9월부터 배치 운영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 기초수학반과 한자 급수반, 종이접기반을 6개소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학력신장과 취미교양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우암 2동 한글교실에 다니는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 교실을 개설하여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미 245명 중 110명을 일선학교와 동주민센터의 강사 등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일선학교 방과후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데 참여했던 코디네이터를 10월부터는 동 주민센터 11개소에 배치하여 강사관리, 수강생 모집 및 관리, 강의실과 시간표 계획 그리고 동 행정 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대성당 지혜대학 개강 이기대성당(주임신부 이세형 유스티노)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이종철 구청장과 김무성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혜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대학은 앞으로 다양한 동아리별 강좌를 운영한다.



이종철 구청장 감사패 받아 (주)용호시장 상인회(회장 김성근)는 지난 22일 구청장실을 예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종철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륙도청소년음악제 잘마쳐 남구청년연합회(회장 이재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성지공고 호산나관에서 관내 14개 중·고교 2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남구오륙도청소년음악제를 열었다.



청소년 문화체험 축제 성료 남구는 지난달 29일 구민공원에서 시·구원과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출네트워킹 주관 한여름밤의 축제 '남구 청소년 문화체험축제'를 열었다.

구청엔테나

개청 33주년 사진전

개청 33주년 사진전

남구는 개청 33주년을 맞아 우리 고장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 고장 변천모습 사진전'을 9.29~10.10일까지 2층 민원홀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75년 남구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남구청사의 변천모습 등 사진 20여점이 전시된다.

취업설명회 내달 14일

남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설명회를 내달 1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취업전문기관 강사가 초빙돼 취업 실정요령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유용한 취업정보와 각종 고용정책, 소규모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남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된 정보화 교육은 컴명탐출하기, 문서작성, 인터넷으로 정보파라기 등 3개 과정이며 각 39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9월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http://eudy.busan.go.kr)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 607-4306~7

go.kr)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 607-4306~7

'부산역사 탐험대' 운영

남구도서관에서는 10월25일 오전 9시부터 부산시립박물관 등에서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부산역사 탐험대' 프로그램을 연다. 관내 4~5학년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료로 열리며 수강생들은 부산박물관 유엔조각공원, 평화공원을 돌며 부산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의 지구'를 만들며 부산 사람의 정신을 되살린다.

도서관은 10월1일부터 탐험대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 607-4781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2008 부산 노인일자리박람회가 10월13일 오전10시부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다. 박람회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을 방문해 구직상담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사진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 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0월10일까지. ☎ 864-6300